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나섰다

전북자치도, 기업 유치 촉진·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익산·고창·남원 등 기존 산단 중심으로 39만평 목표
올해 추가 지정시 지난해 88만평 포함해 총 127만평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재부품(익산·고창)과 라이프케어(남원) 분야에 걸쳐 총 39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등 3대 산업 88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특구 지정에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9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3개 시(익산·남원·고창), 2대 산업(소재부품·라이프케어), 39만평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대상 산업단지는 익산 합영농공단지(8만평), 고창 신활력산단(14만평), 라이프케어 분야는 남원 일반산단(17만평)이다.

익산과 남원 산업단지는 각각 2019

년, 2021년에 준공됐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에 통해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두고 8개 기업과 총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 추가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지정된 88만평을 포함해 총 127만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지정 한도인 200만평까지는 73만평이 남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기업 유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매김할 이번 특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고 살게 만드는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덕유산 설천봉 내 팔각정서 화재 발생

2일 오전 0시 23분경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 내 팔각정인

'상제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이 치솟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국 최초' 전북형 공수의 도입

수의직 인력난 해소·도내 축산물 안전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하며, 지역 내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로, 전북은 이번 위촉을 통해 현실적인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에 도지사가 필요

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들은 4일간의 집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도는 이번 공수의 위촉을 통해 도축 검사 강화와 축산물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축산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업계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출시 3년차' 전주 맛배달 이달 한 달간 기념 이벤트

할인쿠폰 제공·우수 가맹점 선발 등 진행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오는 28일 출시 3주년을 앞두고 소비자와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3주년 기념 이벤트는 소비자와 가맹점 대상으로 각각 2가지 항목으로 진행되며, 전주시민 및 전주시 가맹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2월 한 달 동안 기존 월요일마다 적용되던 주간 할인(2,000원)과 더불어 총 1,200장의 '3주년 감사 할인쿠폰(3,000원)'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쿠폰은 2월 중 매주 수요일(5일, 12일, 19일, 26일) 오전 10시 각각 300장씩 발급되며, 선착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은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주맛배달의 세 번째 생일인 오는 28일에는 고객 1,000명에게 '3주년 기념 할인쿠폰(5,000원)'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진다. 해당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맛배달은 기존 전주맛배달 가입 운영 가맹점 중 매출 상위 가맹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가맹점 선발대회'를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2월 한 달 동안 매출 상위 30위 안에 든 가맹점 중 추첨을 통해 10곳을 선정해 우수가맹점 전용 '2,000원 할인권'이 지원된다. 이 할인권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되며, 가맹점당 50장씩 총 10곳에 제공된다. 소비자는 결제 시 선착순으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전주맛배달은 2월 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앱에 노출까지 완료한 선착순 20곳의 가맹점에 전용 '1,000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할인권은 신규 가맹점의 첫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며, 가맹점당 100장씩 총 20곳에 제공된다. 해당 할인권 역시 결제 시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허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더 많은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한 이번 3주년 이벤트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맛배달이 3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꾸준한 이용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맛배달을 통한 소비 증가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맛배달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전주시당 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과 다양한 이벤트 및 쿠폰 혜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공공배달앱으로, 지난 2022년 2월 출시됐다. 전주맛배달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맛배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j_or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